

‘스바냐 개요’

1. 저자 및 기록 연대

- 본서의 저자는 선지자 ‘스바냐’란 사실에 큰 이견이 없음.
 - 성경 스스로 1 장 1 절을 시작하면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증언!
 - ‘스바냐’란 뜻은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란 의미!
 - 참고로 ‘스바냐’는 ‘므낫세’ 왕의 통치 후기에 출생하였는데, 아마도 당시 유다는 ‘므낫세’의 잔악한 통치가 행해지고 있던 때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감추시고 보호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영적으로 해석한 학자들도 있음..
- 본서의 기록 연대
 - 1 장 1 절이 설명해 주듯 유다 왕 ‘요시아’(B.C. 640-609)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정확한 기록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론들이 있음.
 - 보수적 학자들은 ‘요시아’의 종교개혁(B.C. 622) 전인 B.C. 627-626 년 경으로 추정!
 - * 유다 사회에 공공연히 행해지는 우상숭배를 책망(1:4-5), 곧 종교개혁 전에 기록!
 - * 또한 앗수르와 니느웨의 멸망(B.C. 612 년)을 예언(2:13), 곧 그 전에 기록!
 - 참고로 ‘스바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B.C. 628-586)

2. 본서의 중심 주제와 구성, 핵심구절

-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 => ‘여호와와의 날!’ : ‘~큰 날, ~희생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 ①. ‘여호와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의와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예정하신 날로, 침략과 재난이 닥쳐와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 (1 장 13-18 절)
 - ②.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의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날! (2 장)
 - ③. 그런데 이런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면(지나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여 ‘여호와와의 구원 날’이 성취될 것! (3 장 14-20 절)
- ‘스바냐’서의 구성

=> 크게 2 부분으로 구성 : ‘여호와 날에 있을 심판!’ + ‘여호와와의 날에 있을 구원!’

 - ①. 여호와와의 날에 있을 심판 (1 장 1 절- 3 장 8 절)
 - a. 서론/시대적 배경(1:1-3)
 - b. 유다에 대한 심판(1:4-18)
 - c. 회개에 대한 권고(2:1-3)
 - d. 이방 나라들(블레셋,모압, 암몬, 구스, 앗수르)에 대한 심판(2:4-15)
 - e.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3:1-8)
 - ②. 여호와와의 날에 있을 구원(3 장 9-20 절)
 - a. 이방을 위한 축복의 약속(3:9-10)
 - b. 유다를 위한 축복이 약속(3:11-20)

▪ 핵심구절 두 가지

①. 1 장 14-16 절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그의 날의 소리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②. 3 장 17 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스바냐 1 장, ‘여호와와 그의 날에 있을 심판 1’

1. ‘스바냐’서의 서론 (1-3 절)

1)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현손’ 이었습니다! (1 절)

▪ 1 절 주목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 우선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4 대 위까지로 올라가면서 소개한 적이 없음!
 - 그럼 왜 이렇게 소개할까? 바로 선지자 ‘스바냐’를 ‘히스기야’ 임금과 연결시키기 위함!!
- 여기서 그럼 참고로 ‘히스기야(B.C. 725-697)’ 왕은 어떤 왕이었나?
 - a. 스바냐의 4 대 조부로 유다의 13 대 왕! (유다 역대 왕들중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림!)
 - b.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심’
 - c. 그는 선대 왕인 ‘아하스’ 때의 종교적 타락과 무질서를 바로 잡고, 유대 역사상 가장 큰 종교적/정치적 개혁을 진행!(왕하 18:3-8)
 - d. 뿐만 아니라 앗수르의 압박으로부터 유다의 자주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헌신!
 - 그 정책의 일환으로 ‘실로암 터널 수로’를 만듦!(왕하 20:20, 대하 32:1-8)
 - e. 특별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15 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고, 앗수르를 물리친 사건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
-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후손인 왕족 ‘스바냐’를 하나님은 ‘요시야’왕 때 선지자로 선택!!
 -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를 일꾼들을 부르심!!
 - 개인적인 목상: ‘히스기야’가 가졌던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이 유다 14 대 왕인 ‘므낫세’가 아닌 흔적없는 ‘아마랴’를 통해 ‘스바냐’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무엇을 이어 받고 줄 것인지 다시금 목상!!

- 그럼 여기서 ‘요시아(B.C. 640-609)’ 왕은 어떤 왕이었나?
 - a. 유다 16 대 왕으로 8 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왕하 21:24), 선왕들인 ‘므낫세’나 ‘아몬’의 뒤를 따르지 않고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했던 왕!
 - b. 특별히 그는 성전 공사중 율법책을 발견한 데제사장 ‘힐기야’(왕하 22:8)의 지도를 받으며,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
=> 모든 성에서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실행! +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자 힘씀!
-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힘을 보태주시려고 안으로는 왕실에 속한 왕족 ‘스바냐’를 선지자로 택하셨고, 밖으로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셨던 것!!

2)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바냐’를 택하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2-3 절)

- 2 절 주목!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 3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며 선언!
 - a.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진멸!
 - b.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
 - c.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
-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 한 가지!
 - => 바로 범죄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이란 사실!
 - =>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두 번씩이나 분명한 예로 보여 주셨음!!
 - 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 (창 3 장)
 - ②. 노아의 홍수 사건! (창 7 장)
 - > 곧 범죄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땅 위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진멸 당함!
- 따라서 죄의 경각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함!!
 - ①. 내가 짓는 죄는 나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 이웃들, 공동체는 물론이고,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죄를 조심하는 성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 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재림의 은혜) 안에서 온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란 사실을 믿고, 주님의 다시오심을 날마다 바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자!
 - 이사야 11 장 6-8 절
 -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